



신종 코로나발 경제위기 “함께 극복을”

범도민 협의체 오늘 출범... '제주그랜드 빅세일' 추진 국내 단체관광객·중소 규모 회의 유치 인센티브 부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제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그랜드 빅세일'을 추진하고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부활, 중소기업 회의 유치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2일 도청 백복홀에서 '코로나19' 국면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 출범 준비를 위한 총괄조정회의

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날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유채꽃 축제 등 봄 축제 등과 연계해 제주그랜드 빅 세일 추진, 교육여행 마케팅 추진, 중소기업 회의 유치시 인센티브 지원 확대,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의 유치시 인센티브 지원 확대, 일본 등 동남아 긴급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관

광진흥기금 제도 개선과 무사증 제도 실시 중지 및 해제 대정부 요청권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주경제 위기 극복 단기 과제로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 안전자금 2000억원 지원, 사업주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휴업·휴직 시 사업주 지급 휴업수당의 2/3지원, 1일 한도 6만5000원) 등을 제시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보증재원 20억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140억원→16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0억원, 수출기업 마케팅 다변화, 제주화장품 인

증제도 활성화 사업비 2억원, 미생물 자원화 지원센터 2020년 사업비중 부족분 2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소비 위축 극복 방안으로 제주산 농수산물 국내 소비촉진관측 기획·홍보전, 주산지 중심 채소가격 안정제 추진, 농축산수산물 소비촉진 특판 행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무급 휴가를 시행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 지원책은 미흡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자유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보수신당의 명칭이 '대통합신당' 잠정 결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은지기자

자유한국당 도당 “보수통합 급물살 환영”

‘대통합신당’ 합의 관련 입장

자유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 문재인 전선인 보수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결코 선봉에 서서 싸우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게 단합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철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지난 10일 통합신당준비위원회가 통합보수신당의 명칭을 ‘대통합신당’으로 잠정 결정했다”면서 “한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보수통합을 이뤄 반문 전선을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제주시 갑·을 지역은 16년, 서귀포지역은 20년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다”면서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이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사측생의 정신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제주의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내 예비후보 6명(제주시갑 고경실·구자현·김영진, 제주시을 강승연·김효·부상일)도 참석해 필승 의지를 다졌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산업구조 다변화 고부가산업 육성 ‘빠격’

▶1면에서 계속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도시’로 지정받아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기존 1·2차산업을 용

합해 농어촌과 스타트업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이 밖에 바이오·화장품 산업의 제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시험생산동 및 연구개발동’이 각각 올해 완공·착공되며,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도 착공한다.

도는 지금까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대규모 관광·레저산업에 치중해왔다. 올해부터 투자분야 산업을 IT(정보통신산업), BT(생명산업), CT(문화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투자국가 역시 중국(중화권 포함)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에 한정됐지만 미국과 유럽 등으로 다양화하겠

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주 미래산업이 뜬구름 잡기가 아닌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제주 자연·인문환경에 맞는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과제다. 여기에 특별자치도법 등을 통해 제주만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론3사 공동취재단



2020 제주의 미래 D-62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브리핑 <정당·성명·가나다 순>

“연동·노형 교통체증 해결 트램 도입”

제주시갑 고경실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고경실(사진) 예비후보는 12일 노형·연동지역 교통시범지역 지정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재검토, 1촌 1브랜드 정책 지원 등을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드림 타워가 준공되면 교통체증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하도와 인도용 고가도로 건설과 함께 연동·노형,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을 연결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트램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농수산물식품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제주시갑 구자현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구자현(사진) 예비후보는 12일 “제주시 서부지역에 농수산물식품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제주경제 전체의 선순환 사이클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1차 생산 원물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2·3차 산업 인프라다”면서 “서부지역에 단지를 조성해 제주 농어업 자원을 더 큰 경제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도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시행을”

제주시갑 양길현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양길현(사진) 예비후보는 12일 “제주도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평대별 지역간 평균 근로소득 격차를 보면, 제주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제주경제의 고질적인 저임금 체계가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은지기자

“4년간 변함없는 격려... 든든한 제주 만들 것”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 13일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사진) 국회의원이 본격적인 총선 출마 행보를 시작했다. 오 의원은 1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다고 12일 밝혔다. 오 의원은 “4년간의 정경활동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이 듣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제는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제주시민과 발맞춰 더 나은 제주, 든든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은범기자

“구좌지역 특산물·관광지 하나의 브랜드로”

제주시을 김효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김효(사진)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좌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구좌읍의 유명 관광지들과 지역 특산물을 하나의 ‘구좌 브랜드’로 묶어 통합마케팅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구좌의 모든 상품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민주당 제주지역구, 경선이나 단수 추천이나

심사 종료... 이번주 순차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지역구 후보자 심사를 종료하고 조만간 경선과 단수 추천 여부를 확정한다.

민주당은 13일까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공천적합도·서류·면접 심사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경선지역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제주시갑 외에 제주시을과 서귀포시 후보자들이 심사를 받았다. 제주시을은 현역 오영훈 국회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달 초 이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성명·연령·정당·직업·경력 순
▶제주시을 ▷강은주 ▷50 ▷민중당 ▷정당인 ▷현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진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경선이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후보 공모에 단독 신청한 위성근 국회의원이 이날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혼자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 오는 17~19일 사흘간 추가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이 단수 공천 신청지역을 추가 공모키로 한 것은 당 안팎의 ‘갈라치기’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수 후보라 하더라도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추가 공모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서귀포시가 추가 공모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당초 2월말 3월초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추가 공모가 마무리되고 20일쯤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략공천지역인 제주시갑의 경선 여부 결정도 2월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소상공인 경영 아카데미
2020년도 창업교육 1기
“준비된 당신의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0. 2. 12(수) ~ 2. 21(금)

교육기간: 2020. 2. 26(수) ~ 2. 27(목)
과정명: 2020년 소상공인 경영 아카데미 창업교육 1기 과정
교육대상: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제주도민(40명 선착순 모집)
교육내용:

일시	교육내용	강사
2월 26일 (수)	10:00 - 12:00 (2시간) 창업 아이템 및 상권분석	박수영 경영지도사
	13:00 - 15:00 (2시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준범 변호사
	15:00 - 17:00 (2시간) 소상공인 세무 실무	오승진 회계사
2월 27일 (목)	10:00 - 12:00 (2시간) 기업 노무관리 기초	신기록 노무사
	13:00 - 15:00 (2시간) 창업의 이해와 사업자 지원 사업 정보	배정봉 제주관광대 외래교수 임재우
	15:00 - 17:00 (2시간) 사업자의 신용관리 및 고객관리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장

장소: 제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강의실(제주시 연복로 33, 4층)
수료혜택: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우대창업기업(최대5천만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 심사 시 우대혜택
신청방법: 홈페이지(www.jejusc.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접수(교육비 전액 무료)
접수 및 문의: 064-758-5710

경희대학교 제주총동문회 정기총회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일 시 : 2020년 2월 20일 (목) 오후 7시
- 장 소 : 제주칼호텔
- 안 건 : · 2019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 2020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임원선출
- 참가범위 : 경희대학교 및 각종 대학원 졸업자
- 회 비 : 3만원
- 문의처 : 사무총장 송동훈 (010-2696-6430)

경희대학교 제주총동문회 회장 최영범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756-2833